

2016. 7. 25.(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중부일보

2016년 07월 25일 (월)
01B면 종합

캠프 그리브스, 문화시설로 만든다

무기실·탄약고·저장고·비품실
12곳 역사관·전시관 리모델링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였던 광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그리브스의 무기실, 탄약고, 비품실이 역사관, 전시관,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내면 백현리 357-1 일원 캠프 그리브스내 부대 시설 12곳(연면적 1천878.9㎡)을 내년 5월까지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문화재생사업

을 추진한다.

무기실·비품실(183.9㎡)·저장고·하사관숙소 3곳(272.18㎡)·탄약고 2곳(각 154.98㎡)·독신하사관숙소(728.15㎡)는 안보 및 생태 문화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한다.

보일러실(109.78㎡)·부대 휴게실(89.06㎡)·중대사무실(125.61㎡)은 역사관으로 바꾼다.

중대사무실(91.14㎡)은 관광안내사무소와 카페로 만든다.

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제3땅굴~도

라산전망대~캠프그리브스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3시간 코스로 주중 2회, 주말 4회 운영된다.

요금은 연령에 따라 6천700~1만3천 200원, 단체는 3천~8천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셔틀버스는 이달 중 광주시와 경기관광공사간 협약체결 이후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안보관광지로 지정된 광주 캠프 그리브스는 다음달부터 사전예약(군부대 허가) 없이 당일 임진

각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해 출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캠프 그리브스에 출입 하려면 최소 2~3일 전 사전예약을 해야 했다"면서 "이 절차가 폐지되면서 하루 출입 가능 인원도 250명에서 3천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후 50여년간 미2사단 506 보병대대가 주둔해오다, 1997년 미군의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이다.

김민구·조윤성기자

22.9 X 9.0 cm



지난 주말 DMZ 패투어단이 김포와 연천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경기도 안보관광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청

무더위 속 패투어단 DMZ 탐방

道평화누리길 패투어단 경기북부 DMZ 도보여행

60년 동안 아무도 밟지 못한 길, 상처와 그리움의 길로 남겨진 분단의 길을 경기도 평화누리길 패투어단이 걸었다. 일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를 끈 주말, 경기북부 비무장지대(DMZ)는 청와대 관계자, 교수 등 30여명의 패투어객으로 북적였다.

지난 22일 패투어단은 김포 대명항에서 염화강 철책선을 걷기 시작해 해병2사단, 애기봉, 조강철책길, 김포국제조각공원을 걸었다. 첫째 날 마련된 숙소는 경기도에서 마을회관을 빌려 조성한 김포 조강리 게스트하우스였다.

패투어객 십 여명이 한 방에서 몸을 부대끼며 숙박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마련된 지역 특산물 전시코너에서 패투어객들은 천연농산물을

직접 맛봤다.

둘째날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인 임진 적벽길은 자연과 평화누리길이 어울어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이어진 12코스 통일 이음길을 탐방후 패투어단은 연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모냈다.

이번 패투어에 참가한 박광섭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은 “그간 DMZ일원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앞으로 평화누리길 게스트 하우스가 그 뜻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에서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한다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희 패투어객은 “38년전 사단 수색대대에서 군복무하던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 28사단 태풍전망대를 방문해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북녘의 고운산하를 평화누리길 철책선 너머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DMZ서 동·서양 하모니'...연천 국제음악제 23일 개막

'DMZ서 동·서양 하모니'...연천 국제음악제 23일 개막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동·서양 음악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제6회 연천DMZ국제음악제'가 23~31일 경기도 연천군 수레울아트홀 등에서 열린다

잔잔한 물결에 클래식 음악을 실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흘려보낸다는 의미를 담은 '연천(漣川)'을 주제로 한 이번 음악제에는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독일 등 7개 국가 320여 명의 음악인이 참여한다.

개막공연은 23일 오후 7시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리며 페스티벌 챔버오케스트라, 고성현 한양대 교수, 막심 페도토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교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 한다.

24일 오후 2시에는 제임스 토코 신시내티 음대 교수 등이 콘서트를 열며, 27일 오후 4시에는 남북분단의 현장인 열쇠전망대에서 평화동일 염원 콘서트가 진행된다.

25·26·28일 오후 7시 30분에는 허브빌리지 올리브홀에서 아티스트콘서트와 한·중 교류 음악회가 마련된다.

29일에는 전곡선사유적지에서 나라사랑 콘서트를, 30일에는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라트비아 혼성합창단 카메르의 내한공연을 즐길 수 있다.

폐막공연은 30일 오후 7시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박숙련·윤영화·최다해·구자은,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프레드릭 모로, 지휘자 막심 페도토프·장윤성 등이 출연해 멋진 앙상블로 음악제 막을 내린다.



연천군이 주최하고 DMZ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열리는 연천DMZ국제음악제는 DMZ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세계 공통언어인 '음악'으로 인류평화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wyshik@yna.co.kr
(끝)